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도입실태 분석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Improvements Being Made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노동조(Dong-Jo Noh)*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도입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우편 설문 조사를 통하여 국내 24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운영 개선 방법에 대한 실시 여부와 도입 시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이 된 24개 대학도서관에서 모두 88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 도서관 당 평균 3.67개의 개선방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의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8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7년의 10건, 2005년의 9건, 2010년의 8건, 2009년의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입 시기가 대부분 2005년 이후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별로 개별 도서관의 도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가 18개 도서관이 실시하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의 순이었다. 반면에 특수주제별 위키 작성하기는 단 한 곳의 도서관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와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도 각각 1개의 도서관만이 실시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키워드】

도서관 운영, 도서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학 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improvement being made to Korean university libraries. An e-mail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4 Korean university libraries. Conclusions after analysing the responses of the survey were as follows:(1) 24 university libraries implemented 88 different methods of operating their libraries. In other words each library implemented an average 3.67 different methods operating.(2) Twelve universities initiated their improvement schemes in 2008, ten universities initiated their improvement schemes in 2007, nine universities initiated their improvement schemes in 2005, eight universities initiated their improvement schemes in 2010 and seven universities initiated their improvement schemes in 2009. Most university libraries implemented their improvement after 2005.(3) Most university libraries improvement schemes entailed online tours, special events, personal customized services, and SMS services. We noted that online reference services such as the Wiki Service, Twitter, Facebook, Cyworld were not initiated.

【Keywords】

10 Technology Ideas Your Library, Library Management, Library Service, Social Network Service, Academic Library

1. 서 론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정보자원에 대한 보존이며, 다른 하나는 이용자에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jnoh@smu.ac.kr)

논문접수일자 : 2010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9월 25일

대한 정보서비스이다. 디지털도서관이 정착하면서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보존 즉,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만,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증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진화할수록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맞는 이용자 착근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서관도 이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유스트림(Ustream), 딜리셔스(delicious), 플리커(Flickr), 슬라이드웨어(SlideShare), 포스퀘어(Foursquar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의 도입 여부가 화두이나, 멀지 않은 시점에서 개개의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Kroski(2010)는 도서관 서비스 및 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10가지 방법을 아메리칸도서관(American Libraries) 웹사이트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도입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4년제 대학 중에서 단순무작위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30개 도서관을 선정하고,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도입 실태와 시기를 조사하여, 새로이 시도되는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대응 자세와 의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서관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서비스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관련 연구

Kroski가 제시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은 최근의 도서관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및 도서관 2.0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연구를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 하나는 도서관 2.0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념 정립과 관련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 2.0 및 소셜 네트워킹에 기반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이다.

2.1 개념 정의와 관련된 연구

Peltier-Davis(2009)는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대

안으로 도서관 2.0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소셜 네트워킹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도입 및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현실(2007)은 정보기술의 진전이 웹 2.0의 등장과 함께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개방, 공유, 참여, 협업으로 요약할 수 있는 웹 2.0 정신은 웹 기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도서관에도 서비스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Holmberg 등(2009)은 도서관 2.0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현장의 사서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서관 2.0의 개념을 상호활동, 이용자, 참여, 도서관/도서관서비스, 웹/웹 2.0, 사회적 양상, 기술의 7가지로 정의하였다.

조재인(2008)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웹 2.0이 등장하면서 발생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온라인으로 구축한 친목기반 인맥형성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2.2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이지연 등(2008)은 도서관 2.0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는 웹 2.0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2.0 서비스 보다는 오히려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 수신, 정보전문가에 의한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구글 스칼라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hen 등(2009)은 뉴욕의 81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개별 도서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웹 2.0의 현황을 밝혔다. 조사 결과, 분석대상 도서관의 42%가 웹 2.0 도구를 하나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활용 도구 중에는 블로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현실(2007)은 대학도서관 2.0에서 사서의 업무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사서 업무와 통합하여 업무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업무인 '장서개발과 수서'는 '자원개발'로, '분류와 목록'은 '기술개발'로, '대출'은 '정보교육'으로, '참고봉사'는 '서비스개발'로, '보존'은 '아카이브 구축'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조재인(2007)은 긴꼬리 현상으로 불리우는 롱테일(long tail) 현상을 도서관 서비스에 응용하여 도서관 2.0의 철학과 기술을 활용한 7가지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간 정보자원 공유를 활성화하라(실천방안: 종합목록, 상호대차, 공동보존, 공동수서), 2) 고객참여형 서비스를 개발하라(실천방안: 위키, 블로그, 추천, 리뷰, 이용자태그, 플리커), 3)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자원이 접근되도록 하라(실천방안: OpenURL, Deep-Link, 매쉬업, RSS, 라이브러리룩업), 4) 다양한 버전의 유관 자료들을 브라우징하고 제공하라(실천방안: FRBR 브라우징과 xISBN서비스), 5)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라(실천방안: 매쉬업, 라이브러리룩업, OpenURL, Deep-Link), 6)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실천방안: Audience Level, 아작스), 7) 다양한 정보자원을 열거하라(실천방안: 디지털정보자원 생산 연계, 동영상, 인터넷 자원 연계, 인터넷자원 목록 작성)이다.

조재인(2008)은 또 앞서 연구에서 도서관 정보 수요자의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소를 도출하고 나아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소로 사회적 어휘의 사용, 소셜 네트워킹과 개인적 작업의 연계, 다수 군중의 참여를 제시했으며,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정보 객체를 중심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지원,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지원, 소셜 커뮤니티 지원, 상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정보 수요자의 소셜 네트워크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처럼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2.0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입각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실시 여부와 도입 실태를 연구한 실증적 연구는 없었다.

3.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

Kroski는 미국도서관협회 발행 잡지인 American Libraries와 아메리칸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다음 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테크놀로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그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일상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러한 테크놀로지

의 사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새로운 웹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지와 습득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즉, 배움의 곡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예로서, 도서관을 소개하는 책자보다는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한 도서관 투어 동영상이 보다 효과적이며, 이용자들의 검색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도서관 신착자료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 전송,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의 개인화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개선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

- (1)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 (2)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
- (3)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
- (4)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
- (5) 특수주제별 위키 작성하기
- (6)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 (7)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 (8)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
- (9) 관내 블로그로 직원간의 정보공유하기
- (10)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Unconference) 개최하기

4. 조사의 설계 및 결과 분석

4.1 자료의 수집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국내 도서관의 도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제시된 개선방법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실시 여부와 도입 시기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내 259개 4년제 대학도서관 중에서 단순무작위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30개 대학을 선정하고, 전화로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전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30개

1) Kroski Ellyssa. 2010. 10 Technology Ideas Your Library can Implement Next Week. *American Libraries*, 41(3): 30-33.

기관 중에서 25개 도서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1부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에 사용한 유효 응답지는 모두 24부(80.0%)였다. 설문 조사는 2010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1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4.2 자료의 분석

4.2.1 도서관별 분석

(1) 실시 여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24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4개 도서관에서 모두 88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당 평균 3.67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도서관별로 분석하면, G도서관이 전체 10개의 방법 중에서 8개의 방법(80.0%)을 실시하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7개(70.0%)를 실시하고 있는 D도서관이었다. F도서관, I도서관은 6개(60.0%)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5개(50.0%)를 실시하고 있는 E도서관, H도서관, O도서관, V도서관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24개 분석대상 도서관 모두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B도서관, P도서관, W도서관은 단 한 개(10.0%)의 방법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었으며, S도서관은 2개(20.0%)의 방법을, 그리고 A도서관, C도서관, J도서관, K도서관, R도서관, U도서관, X도서관은 3개(30.0%)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표 1>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의 실시 여부

(○ = 실시, △ = 실시 예정, 공란 = 미실시)

도서관 \ 개선방법	1*	2	3	4	5	6	7	8	9	10
A	○	○				○				
B	○									
C	○						○		○	
D	○	○		○		○	○		○	○
E	○					○	○		○	○
F	○			○		○	○		○	○
G	○	○		○		○	○	○	○	○
H	○	○		○		○	○			
I	○	○		○		○	○			○
J						○	○			○
K		○				○	○			
L	○	○	○				○			
M	○					○	○		○	
N	○	○				○	△			
O	○	○		○		○				○
P	○									
Q	△			△	△	△			△	
R	○						○		○	
S	○						○			
T	○			○			○			○
U		○		○			○			
V	○	○					○		○	○
W							○			
X		○		○		○				

* 1: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2: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
 3: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
 4: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
 5: 특별주제별 위키 작성하기

6: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7: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8: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
 9: 관내 블로그로 직원간의 정보공유하기
 10: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

으로 적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Q도서관의 경우, 2010년 6월 현재까지는 단 한 가지의 방법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2011년부터는 5개의 방법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2) 도입 시기

24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도입 시기를 조사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 현재, 조사대상이 된 24개 대학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88개의 방법과 실시 예정인 6개의 방법을 포함하여 총 94건에 대한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도입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1건 있었다. 따라서 도입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11건을 제외한 83개의 방법에 대하여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상시라고 응답한 경우(3건)와 수시라고 응답한 경우(2건), 초기

라고 응답한 경우(2건), 학기중이라고 응답한 경우(1건), 매년이라고 응답한 경우(1건) 등 모두 9건을 제외한 74건의 경우를 대상으로 도입 시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7년(10건), 2005년(9건), 2010년(8건), 2009년(7건)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이 대부분 2005년 이후부터 도입됐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눈길을 끈 것은 1960년부터 도입한 경우가 3건, 1977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건, 1990년부터라고 응답한 경우가 1건, 1998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건 있었던 사례로 보아 일부 방법은 도서관 운영 초기부터 도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도서관별로 분석하면, F도서관이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와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중요한 과제

<표 2>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의 도입 시기(연도)

개선방법 도서관	1*	2	3	4	5	6	7	8	9	10
A	08	07				상시				
B	08									
C	06						학기중		09	
D	05	05		상시		02	-		08	상시
E	08					02	02		07	08
F	04			60		77	60		08	60
G	06	08		초기		05	06	10	07	초기
H	08	03		-		07	03			
I	-	05		-		00	-			-
J						05	07			05
K		04				90	03			
L	07	-	10				-			
M	06					09	09		09	
N	10	-				10	10			
O	08	98		08		98				08
P	09									
Q	11			11	11	11			11	
R	05						-		10	
S	10						10			
T	08			수시			매년			수시
U		06		07			09			
V	05	05					07		00	03
W							07			
X		07		-		09				

* 1: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2: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
 3: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
 4: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
 5: 특별주제별 위키 작성하기
 6: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7: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8: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
 9: 관내 블로그로 직원간의 정보공유하기
 10: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를 196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도 197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운영 초기부터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G도서관의 경우도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와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를 도서관 운영 초기부터 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도서관은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를 학기 중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도서관과 T도서관은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와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를 상시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일부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거나 학기 중에 운영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서비스의 도입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별 분석

(1) 실시 여부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별로 개별 도서관의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가 전체 24개 도서관 가운데 18개 도서관(75.0%)이 실시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가 17개 도서관(70.8%),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가 13개 도서관(54.2%), 이용자에게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가 12개 도서관(50.0%)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와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는 각각 1개 도서관(4.2%)만이 실시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수주제별 위키 작성하기는 2010년 6월 현재, 단 한 곳의 도서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한 곳의 도서관만이 2011년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 역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도입 시기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도입 시기를 조사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도입 시기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는 전체 19개 기관 가운데 2008년이 6개 기관(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5년과 2006년이 공히 3개 기관(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에게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는 전체 12건 중에서 2005년이 3개 기관(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7년의 2개 기관(16.7%)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는 단 한 개 기관만이 있었으며, 도입 시기는 2010년이었다.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는 전체 10건 중에서 2000년 이전이 2개 기관(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1개 기관이었다. 특수

<표 3>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별 실시 여부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	실시	실시 예정	미실시	계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18	1	5	24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	12		12	24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	1		23	24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	9	1	14	24
특수주제별 위키 작성하기		1	23	24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13	1	10	24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17	1	6	24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	1		23	24
관내 블로그로 직원간의 정보공유하기	8	1	15	24
중요한 과제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	9		15	24
계	88	6	146	240

〈표 4〉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별 도입 시기(연도)

연도 방법	00 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기타	무응답	계
1*						1	3	3	1	6	1	2	1		1	19
2	1				1	1	3	1	2	1					2	12
3												1				1
4	2								1	1			1	2	3	10
5													1			1
6	3	1		2			2		1		2	1	1	1		14
7	1			1	2			1	3		2	2		2	4	18
8												1				1
9		1							2	2	2	1	1			9
10	2				1		1			2				2	1	9
계	9	2		3	4	2	9	5	10	12	7	8	5	7	11	94

- * 1: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2: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
 3: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
 4: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
 5: 특별주제별 위키 작성하기
 6: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7: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8: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
 9: 관내 블로그로 직원간의 정보공유하기
 10: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
 ※ 기타: 수시, 상시, 학기중으로 응답한 경우
 ※ 무응답: 구체적으로 도입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주제별 위키 작성하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다만 한 도서관만이 2011년에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는 전체 14건 중에서 2000년 이전이 3개 기관(2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2년과 2005년, 2009년이 공히 2개 기관(14.3%)이었다.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는 전체 18건 중에서 2007년이 3개 기관(1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3년과 2009년, 2010년이 공히 2개 기관(11.1%)이었다.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는 단 한 건만 있었으며, 도입 시기는 2010년이였다. 관내 블로그로 직원간의 정보공유하기는 전체 9건 중에서 2007년과 2008년, 2009년이 공히 2개 기관(22.2%)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는 전

체 9건 중에서 2000년 이전과 2008년이 공히 2개 기관(22.2%)으로 가장 많았다.

4.2.3 도서관 위치별 분석

(1) 실시 여부

도서관 위치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12개 도서관에서 모두 54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당 평균 4.50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소재의 12개 도서관에서는 모두 34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당 평균 2.83개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서울 지역의 도서관이 지방의 도서관보다 도서관 운영 개선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도서관 위치별 개선방법 실시 여부

구분	도서관	실시	실시 예정	미실시	계
서울	12	54	0	66	120
지방	12	34	6	80	120
계	24	88	6	146	240

(2) 도입 시기

도서관 위치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도입 시기를 조사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12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54개의 방법에 대한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8년이 14개(1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5년과 2007년이 공히 6개(11.1%) 등의 순이었다. 지방 소재의 12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개의 방법에 대한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이 공히 6개(1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11년이 5개(12.5%),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이 공히 4개(10.0%)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서울과 지방에 관계없이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4 도서관 유형별 분석

(1) 실시 여부

도서관 유형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의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에서 모두 16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당 평균 3.20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개의 사립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모두 78개를 실시(실시예정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당 평균 4.11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사립대학교 도서관이 국공립대학교 도서관보다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입 시기

도서관 유형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도입 시기를 조사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의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이 4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5년과 2009년이 공히 2건(12.5%)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8년이 11건(1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10년이 8건(10.3%), 2005년이 7건(9.0%), 2007년이 6건(7.7%)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도서관 유형에 관계없이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 도서관 위치별 개선방법의 도입 시기(연도)

구분	00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기타	무응답	계
서울	7	1		3	3	2	6	3	6	8	1	2		4	8	54
지방	2	1			1		3	2	4	4	6	6	5	3	3	40
계	9	2		3	4	2	9	5	10	12	7	8	5	7	11	94

※ 기타: 수시, 상시, 학기중으로 응답한 경우
 ※ 무응답: 구체적으로 도입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 7> 도서관 유형별 개선방법 실시 여부

구분	도서관	실시	실시 예정	미실시	계
국공립	5	16	0	34	50
사립	19	72	6	112	190
계	24	88	6	146	240

<표 8> 도서관 유형별 개선방법의 도입 시기(연도)

구분	00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기타	무응답	계
국공립		1			1		2	1	4	1	2			3	1	16
사립	9	1		3	3	2	7	4	6	11	5	8	5	4	10	78
계	9	2		3	4	2	9	5	10	12	7	8	5	7	11	94

※ 기타: 수시, 상시, 학기중으로 응답한 경우
 ※ 무응답: 구체적으로 도입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도입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24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이 된 24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24개 도서관에서 모두 88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당 평균 3.67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도서관별 분석에서는 G도서관이 전체 10개의 방법 중에서 8개를 실시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다음은 7개를 실시하고 있는 D도서관, 6개를 실시하고 있는 F도서관과 I도서관의 순이다. 반면에 B도서관, P도서관, W도서관은 단 한 개의 방법만을 실시하고 있어 가장 적다.

(2) 2010년 6월 현재, 도입 연도를 명확히 제시한 68개의 방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7년의 10건, 2005년의 9건, 2010년의 8건, 2009년의 7건의 순이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 개선 방법은 대부분 2005년 이후에 도입됐다. 그러나 1960년부터 도입한 경우(3건)와 1977년의 1건, 1990년부터의 1건, 1998년의 2건 등의 경우로 보아 일부 방법은 도서관 운영 초기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3)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별로 개별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가 18개 도서관이 실시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이용자에게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 등의 순이다. 반면에 특수주제별 위키 작성하기는 단 한 곳의 도서관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와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도 각각 1개의 도서관만이 실시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4) 도서관 위치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12개 도

서관에서 모두 54개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도서관 당 평균 4.50개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12개 도서관에서는 모두 34개를 실시하고 있어 도서관 당 평균 2.83개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도서관이 지방의 도서관보다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 도서관 위치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도서관의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도서관은 2008년이 14개(1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5년과 2007년이 공히 6개(11.1%) 등의 순이다. 지방 소재 도서관은 2009년과 2010년이 공히 6개(1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11년이 5개(12.5%),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이 공히 4개(10.0%) 등의 순이다. 따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6) 도서관 유형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5개의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에서 모두 16개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 도서관 당 평균 3.20개를 실시하고 있다. 19개의 사립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모두 78개를 실시하고 있어 도서관 당 평균 4.11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도서관이 국공립대학교 도서관보다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7) 도서관 유형별로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도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은 2007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5년과 2009년의 순이다. 사립대학교 도서관은 2008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10년, 2005년, 2007년의 순이다. 따라서 도서관 유형에 관계없이 도서관 운영 개선방법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이를 도서관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진전과 확산 추세, 이용자 착근형 서비스의 도래 등을 감안할 때, 도서관은 웹 2.0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자관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구중억. 2006. Web 2.0 기술을 활용한 Library 2.0 적용 사례. 『제9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2006년 11월 21일.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권태훈. 2008. 웹2.0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블로그 운영 사례. 『사대도협회지』, 9: 205-227.
- 김동재. 2008. 『소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대학도서관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상. 2008. 정보생태계 관점에서 본 도서관 2.0 서비스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29-49.
- 이지연, 민지연. 2008. 라이브러리 2.0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13-231.
- 이현실. 2007. 대학도서관 2.0에서 사서의 업무 방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147-168.
- 조재인. 2008. 도서관 정보 수요자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169-186.
- 조재인. 2007. 롱테일 현상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73-9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라이브러리 2.0과 도서관서비스 발전 방향』.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olmberg, Kim, et al. 2009. What is Library 2.0. *Journal of Documentation*, 65(4): 668-681.
- Kroski, Ellyssa. 2010. 10 Technology Ideas Your Library can Implement Next Week. *American Libraries*, 41(3): 30-33.
- Cheryl, Peltier-Davis. 2009. Web 2.0, Library 2.0, Library User 2.0, Librarian 2.0: Innovative Services for Sustainable Libraries. *Computers in Libraries*, 29(10): 16-21.
- Chen, Xu., Fenfei. Ouyang, and Heting. Chu. 2009. The Academic Library Meets Web 2.0: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5(4): 324-331.
- OCLC WorldCat Community. [cited 2008.3.10]. <<http://www.oclc.org/nextspace/007/productsandservice.htm>>.

〈부록〉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관한 조사

1. 도서관명을 적어 주십시오:

2. 도서관에서의 실시 여부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실시 여부 (○, X)	도입 시기 (예: 2005년 1학기)
도서관 안내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		
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트위터에 전송하기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기		
특수주제별 위키 작성하기		
이용자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 제공하기		
도서관 비이용자들의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하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통한 채팅참고정보서비스 제공하기		
관내 블로그로 직원간의 정보공유하기		
중요한 과제해결을 위한 *언컨퍼런스 개최하기		
기타()		

* 언컨퍼런스(Unconference): 특별한 형식과 절차 없이 즉각적인 발표와 토론, 시연 등으로 진행되는 모임.

3. 기타 의견

(도서관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